



희망찬 2025년의 출발을
〈KPS STORY〉가 응원합니다!



KPS STORY

K P S M A G A Z I N E
KPS STORY

453번째 만남

2025년 1월



Vol.453

2025년 1월

한전KPS



PROLOGUE

시작은 언제나 두근거립니다.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설렘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의 공존 때문이죠.
 새해,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꿈꾸는 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KPS STORY> 신년호에서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움트는 순간 시작하세요.
 그 시작이 성장의 계단이 될 테니까요.
 <KPS STORY>는 모든 분들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K P S M A G A Z I N E KPS STORY

2025. January
Vol. 453

발행인 김홍연
 편집인 정영우
 발행처 한전KPS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전화 061-345-0114
 팩스 061-345-0115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02-786-2999)
 기획·편집·진행 김정필, 한장봉, 김영권, 김누리

한전KPS 웹진은 www.kps.co.kr 또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4
CEO Letter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합시다

08
Special Essay
 2025 '푸른 뱀의 해' 희망찬 시작이
 새로운 나를 이끈다

12
With KPS
 푸른 뱀의 해
 한전KPS 뱀띠 직원 모여라

함께 나누기

14
KPS Inside
 최고의 인재를 꿈꾸며
 오늘부터 KPS인

18
KPS 앙케이트
 시작을 부탁해!

22
콧스톤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26
현장에서 만나요
 안전은 아는 만큼 보인다
 보령사업처

생각 더하기

30
KPS 경제노트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말정산 노하우

34
트렌드 인사이트
 시작이 어려운 순간
 사소하지만 위대한 시작법

38
여행 탐방
 겨울 속 피어난 희망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여정

42
KPS NEWS

46
독자 참여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합시다 ✦

사랑하는 한전KPS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희망으로 찬란한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설렘과 함께 새롭게 가다듬는 각오로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새해 아침입니다. 국내외 전력산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전과 기회가 가득한 2025년 새해인 만큼 한전KPS 임직원 모두 희망과 열정을 갖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한층 성장하는 2025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전KPS 직원 여러분!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둘러싼 에너지 환경, 특히 전력 설비 정비 업계에 급격한 변화와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제10차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모두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확대를 추진하면서 석탄 발전의 비중 축소와 LNG가스터빈 발전으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급등과 기후변화 및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이에 따른 에너지 안보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과 신규원전 건설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정비업계 리더로서 선도적인 인적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한전KPS는 현재에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요 전력그룹사만을 대상으로 단순 설비정비에 만족해서는 지속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결국에 우리의 생존 기반은 축소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어떤 난관도 견디어 나가는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자세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하니 본사 및 전 사업소 전 임직원 여러분은 명심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속성장을 이룹시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정비 사업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의 원전수출전략에 적극 부응해 원전을 포함한 해외 발전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해 신규시장 개척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발전소의 성능 개선과 신재생, 원전특화와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원자력 정비 기술은 더욱 고도화하고, 신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 복합 LNG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AI 로봇 기술을 활용한 신정비 시스템 개발로 기존의 예측 진단에서 성능 복구와 최적 정비까지 아우르는 기술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더 나아가 효율성과 효과성 중심의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로보틱스, AI, 3D프린팅처럼 사업화와 연계되는 기술개발로 한전KPS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한전KPS 모든 임직원이 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개발로 역량을 결집해 경영 성과를 향상 시키고 지속 성장하는 한전KPS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책임 정비를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됩시다!

우리의 제일 목표는 고객사에게 발전과 송변전설비의 종합적인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과 한수원 및 5개 발전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객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가 진솔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치창출의 시너지를 일으킬 때 만들어집니다.

고객이 우리를 신뢰할 때 우리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장이라는 신념 아래, 완벽한 기술과 책임 정비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전 KPS 모든 임직원이 고객가치를 존중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길임을 명심하고 모든 업무에서 고객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자기 규율 안전과 안전 최우선 경영의 정비 문화를 정착시킵시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우리의 사명인 만큼 안전은 고객의 신뢰를 얻는 기본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현장 중심의 자기규율 안전경영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정착시켜 안전수칙 준수에 충실한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전이야말로 차근차근 도전하고 변화해야 이룰 수 있는 혁신의 결과이자 최고의 가치입니다. 개인의 안전이 회사의 안전이며 더 나아가 고객의 내일과 국민 전체의 안녕임을 명심하고 가장 안전한 한전KPS를 만들어 갑시다.

넷째,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며 신뢰 받는 공기업이 됩시다.

청렴과 윤리는 공기업으로서의 기본 가치입니다. 투명경영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윤리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 사회와 상생 협력하며 성장하겠습니다.



우리의 새해 소망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한전KPS 임직원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윤리적 경쟁력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회사가 세계 최고의 전력 설비 정비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업무 관행과 절차를 기본부터 점검하고 보완하여 윤리적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로 지속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다집시다!

우리는 40년 넘게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양보하며 회사 발전에 헌신하는 고유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의 동반자로서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돋움해 지속 가능한 한전 KPS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와 화합의 공동체문화를 정착시켜 한전 KPS가 더 강한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전KPS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앞에 놓인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전KPS의 역사는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열정과 헌신의 이야기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성장하는 한전KPS를 만들기 위해 강인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방울이 모일 때,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 한전KPS 임직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100년 기업의 토대를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끝으로 우리의 새해 소망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한전KPS 임직원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사 장 김흥연

2025 '푸른 뱀의 해' 희망찬 시작이 새로운 나를 이끈다

뱀은 예로부터 신중하고 기민한 동물로 여겨졌다. 감각적이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외부 환경과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색이 상징하는 새로움과 희망, 도약 에너지를 품은 '푸른 뱀의 해'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찬 성장의 기운을 받아 낡은 습관과 허물을 벗고 새롭게 출발할 적기다.

글. 곽한나
참고도서. 케이티 밀크먼 <슈퍼 해빗>,
브라이언트 트레이시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벤저민 하디 <퓨처 셀프>

새출발 효과 (Fresh Start Effect) 새로운 시작이 주는 힘

미국 와튼 스쿨 교수이자 행동과학자 케이트 밀크먼은 책 <슈퍼해빗>에서 '새출발 효과'의 중요성을 알렸다. 새출발 효과란, 새로운 시작이나 중요한 시점을 맞이할 때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새해, 생일, 월요일과 같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적 랜드마크(Temporal Landmark)'에서 더 나은 행동을 실천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원리다. 새해는 새출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다. □

새로운 시작이 주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밀크먼 교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새해 첫날이나 생일과 같은 새로운 시작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조사했을 때, 여러 사람이 그런 날은 과거의 실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라고 전한다. 이른바 리셋 효과(Reset Effect)다. 마치 자신이 어제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타당한 이유라도 생긴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느끼는 날에 더 많은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순간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준다. 새해 새출발 효과는 올해는 다룰 거라는 희망을 품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기회를 만든다. 기대가 생기면 동기가 따르고, 동기는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꼭 새해가 아니어도 좋다. 매월 1일, 매주 월요일 등을 시간적 랜드마크로 삼아 '목표 점검의 날'로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매일, 매주 새출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야심 찬 목표를 추구할 때 좌절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따금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밀크먼 교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용인하고, 실수가 긍정적인 성과 흐름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는 완벽함은 필요하지 않으며, 실패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앞으로의 변화를 더욱 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인다.



“ 새해 새출발 효과는 올해는 다룰 거라는 희망을 품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기회를 만든다. 기대가 생기면 동기가 따르고, 동기는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

시작 알고리즘 도서



저자 케이트 밀크먼
출판 알에이치코리야



저자 벤저민 하디
출판 상상스퀘어



저자 브라이언 트레이시
출판 현대지성

희망은 희망을 가진 사람에 의해 현실이 된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장기수 레드(모건 프리먼)는 감옥에 새로 들어온 앤디(팀 로빈스)에게 “희망은 위험한 거야, 이 안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라고 충고한다. 이에 앤디는 답한다. “희망은 좋은 겁니다. 어쩌면 제일 좋은 거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앤디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결코 잃지 않는다. 수십 년에 걸친 정교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유를 쟁취하는데 성공한다. 비가 내리는 날 감옥에서 탈출한 앤디가 온몸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은 잊지 않는 영화의 백미로 꼽힌다.



칼럼계 아이돌로 불리는 김영민 서울대 교수는 그의 글에서 희망은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정의한다. 즉, 어떤 일이 발생하리라고 예측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기기라고 기대했는데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그렇게 기대한 이가 그 기대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가령 자신이 곧 건강해지리라고 기대하고 예측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이는 기대한 자신이 바로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 김영민 교수는 “희망은 희망을 가진 사람에 의해 현실이 된다. 희망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그 희망은 거대한 사회적 현실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프랑스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폴레옹 황제는 뛰어난 전략과 군사적 재능으로 유럽 대부분의 영토를 정복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희망, 희망이 있는 한 절대 진 것이 아니라고 설파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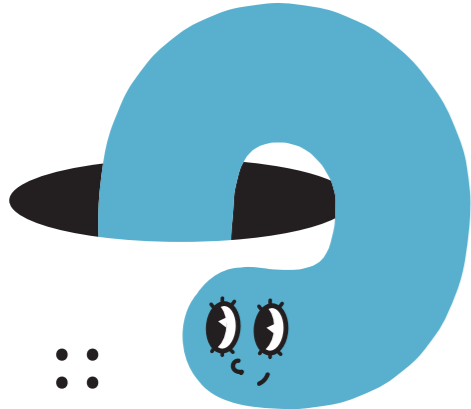
새로운 시작도, 희망도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올해 초 서점가 자기 계발 분야를 휩쓴 베스트셀러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아주 작은 실행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 계발 전문가로 꼽히는 저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스스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접시닻이, 목재공, 청소부 등 다양한 일용직을 전전하다 세일즈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성공 신화를 쓴 인물이다. 40년간 워런 버핏, 앤디 그로브와 같은 세계적 부호의 성공 비결을 해부한 그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바로 '아주 작은 행동의 누적'이라는 비결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숏폼 영상의 일시적 자극이나 SNS 속 화려한 일상, 타인 인정에 의존해 만들어진 동기 부여는 쉽게 타오르고 사라지는 '가짜'라고 말한다. 진짜 동기부여는 '하루 1가지 실천으로 시작하는 도미노 성공' '3일만 해도 몸이 느끼는 미세한 성장의 감각' '인생의 5분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매일 작은 루틴에서 출발해 행동을 기르고, 그로부터 자신감을 얻는 과정이 결국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에서는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기 위한 7단계 실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SEVEN-STEP PROCESS**
-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라
 - 목표를 적어라(글로 적지 않은 목표는 환상일 뿐이다)
 - 기한을 정하라
 - 해야 하는 일의 목록을 작성하라(계속 추가하면서 완성한다)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라
 - 한 걸음만 내디뎌라(모든 성공은 첫걸음에서 시작된다)
 -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을 계속하라

푸른 뱀의 해 한전KPS 뱀띠 직원 모여라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뱀은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은 아니지만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는 동물로 예로부터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시작과, 지혜로운 변혁을 상징하고는 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 뱀띠 한전KPS인들의 특별한 소망을 들어본다.

정리. 편집실



익숙함에 소중함을 잊지 않길

원자력정비기술센터 품질보증부
신선화 대리

푸른 뱀의 해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제가 붉은 뱀의 해에 태어나서 일까요(웃음). 올해 저는 독서와 근육, 웃음은 늘리고, 말과 체지방, 고민은 줄이는 ±3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과 웃으며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릴 생각이에요. 작년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익숙하다고 소홀히 생각했던 시간들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 많이 만드시는 2025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운 뱀의 기운을 받아

하동사업처 기계부
서동운 부장

2025년 새해가 밝았네요. 매년 그렇지만 올해도 저와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무사하고 건강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모두에게 금전운이 함께하시길(웃음). 올해 뱀의 해인 만큼 붉은 뱀띠인 저에게도 다른 해보다 행운이 더 ▶▶



평안한 나날을 바라는 마음

감사실
윤지혜 차장

2025년의 소원은 '평안하게 보내는 나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소소하고 무탈한 날들이 계속되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요즘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보고 싶었던 공연과 콘서트에 가볼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 체력과 재력을 기르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웃음). 새해에는 제 남편을 비롯한 모든 한전KPS인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기원하며

삼량진양수사업소 품질담당
김태황 대리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체력을 기르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전KPS인에게는 작업 환경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무재해의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안전에 신경 쓰는 한편 개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감량에 꼭 성공하는 2025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한 가지 더 한다면 올해는 해외여행도 많이 가서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웃이나를 돌보는 시간

영흥사업처 기계1부
오유민 직원

흰 뱀띠인 저는 2025년 뱀의 해를 맞아 웃이나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작년보다 더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여행도 떠나며 저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2025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모두 원하는 일 다 이루시는 한 해 되세요.



신입사원 입문 과정 현장

최고의 인재를 꿈꾸며, 오늘부터 KPS인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다.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경험은 두렵지만 설레는 시작이다.
한전KPS인 되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발전·정비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꿈꾸며 신입입문 과정의 첫발을 내디딘
2024년 하반기 신입사원 140여 명이 함께한 현장을 따라가 봤다.



1 기다리던 2024년 하반기 신입사원 입사식 시작



한전KPS에 열정 가득한 2024년 하반기 신입사원 140여 명이 모였다.

2 두근두근 신입사원 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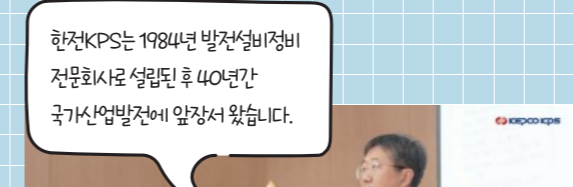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자리에 착석한 140여 명은 회사의 업무를 성실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입사식을 마친 신입사원들은 회사에 대해 이해하고, 기본 소양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위해 인재개발원에 도착했다.

4 KPS인 될 준비 됐나요?

이곳에서 7박 8일간 사내교육과 사외교육, 기타 활동이 진행된다. 우선 한전KPS의 역사와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내교육이 시작됐다.



5 본격적인 신입사원 입문 과정 시작!

6 'VISION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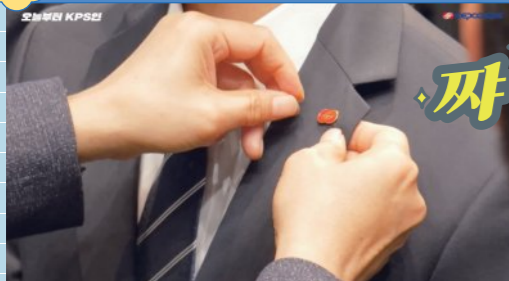
한전KPS의 앞으로 100년을 만들어갈 주역, 신입사원들과 함께 배워보는 'VISION 2030'

7 건강한 신체를 위한 아침 체조



하나동, 하나동!

9 이제부터 진정한 KPS인이 된 신입사원



짜잔

1단계 신입사원 입문 과정을 마치면 이제 2단계 기본직무과정이 진행됩니다. 신입사원의 배치 발령 후 2년 이내에 발전계통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KPS인으로 거듭날 이들.



가즈아

8 팀워크까지 길러보는 비전 레일 만들기



조별로 플라스틱 막대를 연결해 구조물을 만들고, 종이로 레일을 설치해 마지막 목적지에 기차(구슬)가 도착하면 성공! 이 과정을 통해 조직 생활의 협력과 화합, 역할 분담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최고의 인재로 거듭날 여러분의 앞날을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KPS인의 한마디



발전소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맡을 때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신입사원 강민성



오랜만의 단체 생활에 군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상쾌하고 좋네요.

신입사원 김도훈



입사한 만큼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신입사원 김보미



인재개발원의 호수뷰에 감탄했습니다. 최대한 잘 적응하겠습니다.

신입사원 고강훈



넵 할수있어

넵 할수있대님

힘든 취업 과정을 거쳐 이곳에 와서 교육받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신입사원 신재영



동료, 그리고 선배님들과 잘 화합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신입사원 이수진



실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훌륭한 KPS인이 되겠습니다.

신입사원 정재원



한전KPS와 함께 성장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신입사원 안선우



▶ 한전KPS 2024년 하반기 신입사원 입문 과정이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찍고 한전KPS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세요!



시작을 부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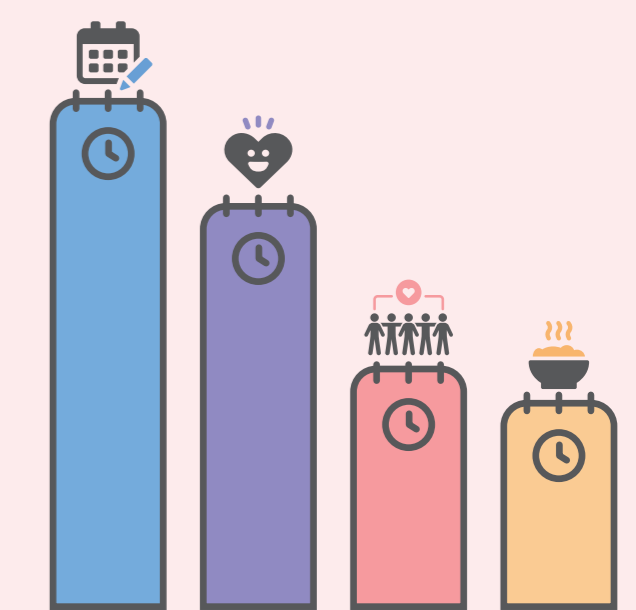
또다시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 2025년 한전KPS인이 꿈꾸고 있는 시작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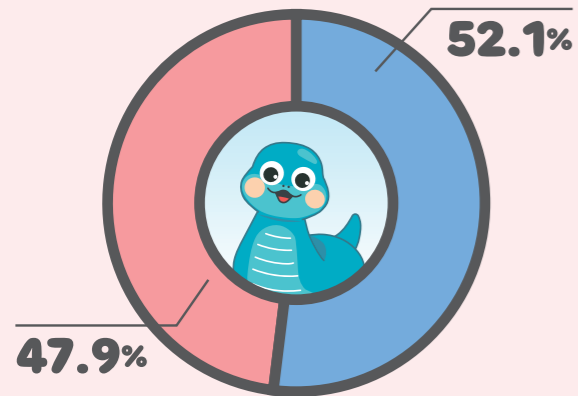


Q3. 시작을 위한 나만의 의식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1 프로 계획러 📅 실천을 위한 계획 정리하기 **42.6%**
- 2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 ♀ 목욕 및 주변 정리 정돈 **28.7%**
- 3 함께 하면 더 좋지 👥 모임, 동호회 등 가입하기 **15.4%**
- 4 금강산도 식후경 🍴 맛있는 음식 먹기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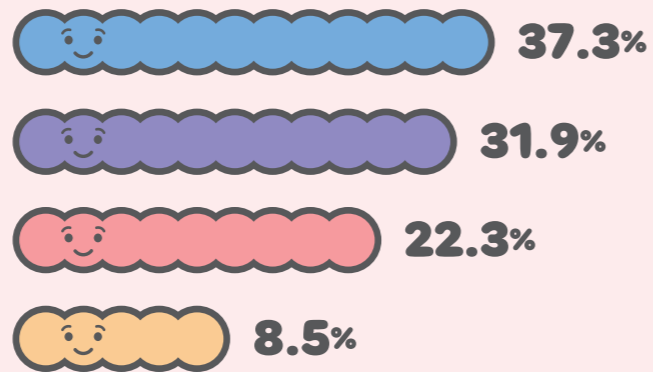


Q1. 푸른 뱀의 해, 당신이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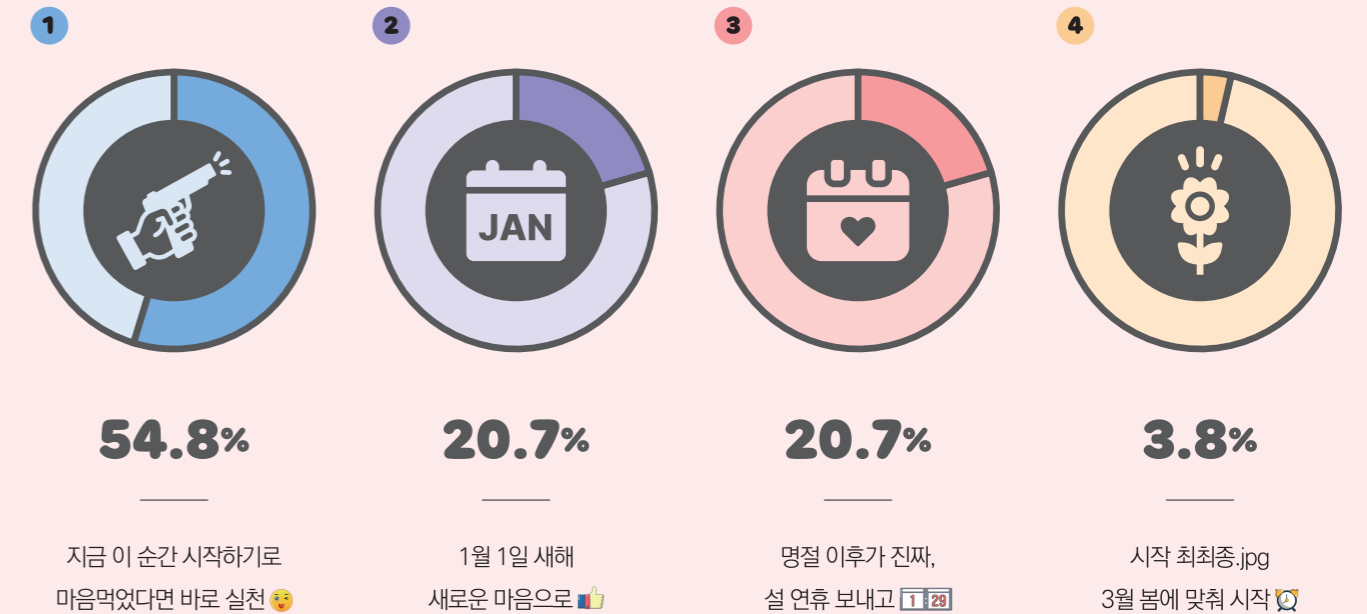
- 1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52.1%
- 2 중요한 것은 꺾여도 하는 마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재도전 47.9%

Q2. 올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1 배우는 게 남는 것 📖 독서, 언어, 자격증 등 지식 쌓기 37.3%
- 2 득근득근 💪 운동으로 체력 기르기 31.9%
- 3 잔테크 💰 한푼 두푼 모아 목돈 마련하기 22.3%
- 4 사람이 재산 👥 더 다양한 인맥 쌓기 8.5%

Q4. 한전KPS인이 생각하는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 1 지금 이 순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바로 실천 🙌 **54.8%**
- 2 1월 1일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 **20.7%**
- 3 명절 이후가 진짜, 설 연휴 보내고 📅 **20.7%**
- 4 시작 최최종.jpg 3월 봄에 맞춰 시작 🌸 **3.8%**

한전KPS

SAY!



반갑다! 2025년

올해는 그동안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자격증 취득에 꼭 성공하고 싶어요. 건강을 위해 운동도 실천할 계획이고요. 하루하루 나태하지 않게 보내고 싶습니다. 작년에 하루만, 또 하루만 미루다 연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올해는 마음먹은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모두 희망찬 2025년 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힘내요!

From. 경영지원처 경영지원부
설재원 주임



한전KPS의 글로벌 도전 정신으로

해외 현장에 가기 위해 아이엘츠 Lv.5 이상의 목표를 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전KPS의 글로벌 도전 정신을 발휘해 더욱 성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는 최고의 인재가 되기 위해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내 모임을 통해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한 해를 보낼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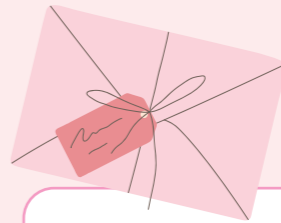
From. 인재개발원
김승민 직원



새로운 마음으로

2024년 하반기 한전KPS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25년 많은 분들과 인연을 쌓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업무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통해 해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의 열정으로 맡은바 주어진 임무에 성실히 임하며, 더불어 새로운 이 마음가짐을 늘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From. 인재개발원
권현배 직원



프로 계획러의 정신으로

한전KPS 입사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 온 신입사원입니다. 올해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운동을 하며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많이 도전해보고 싶어요. 무언갈 시작할 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인데, 올해도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프로 계획러의 정신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From. 인재개발원
김동우 직원



도전은 나의 힘

2025년에는 그동안 마음만 먹고 도전하지 못한 클라이밍을 꼭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모임을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하면 즐겁기도 하고 약간의 강제성이 생겨 좋거든요. 특히 그동안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면서 삶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From. 인재개발원
정재원 직원



작심삼일도 반복하면 좋은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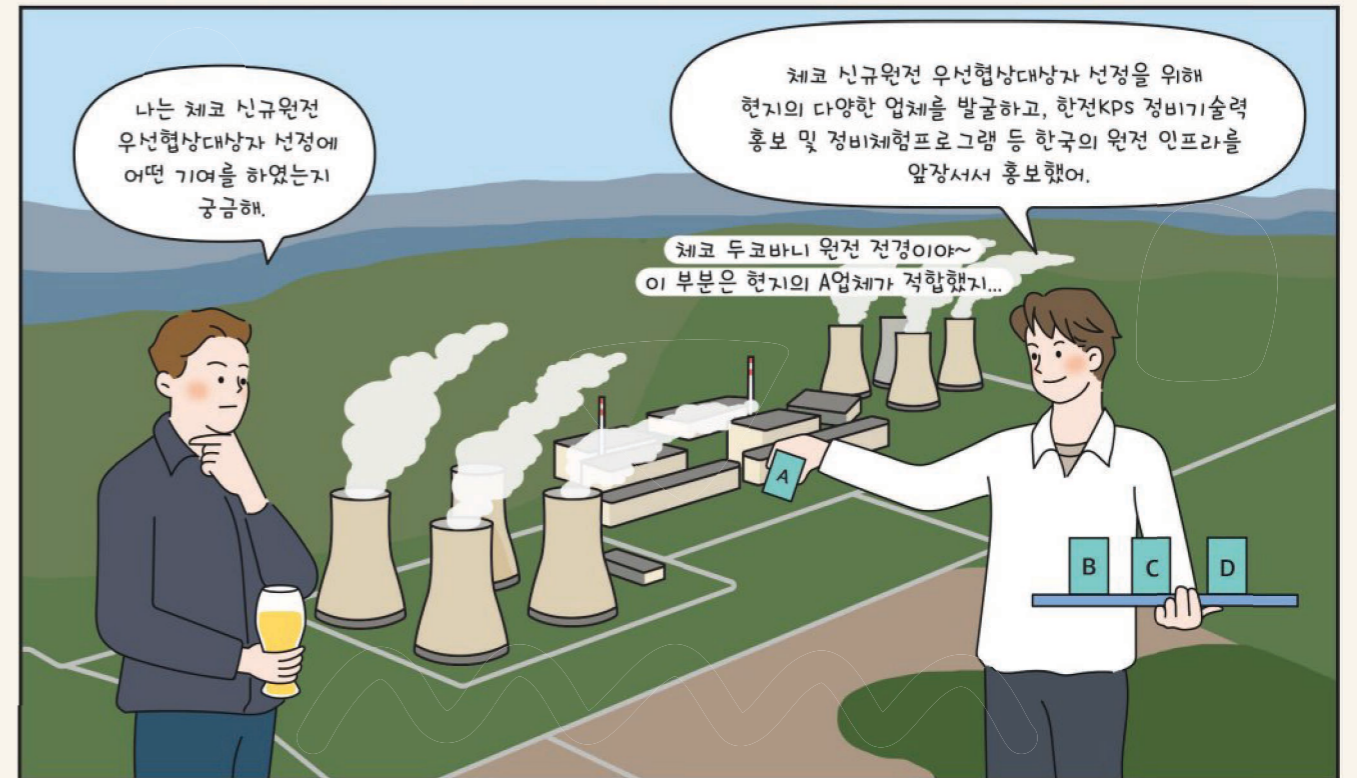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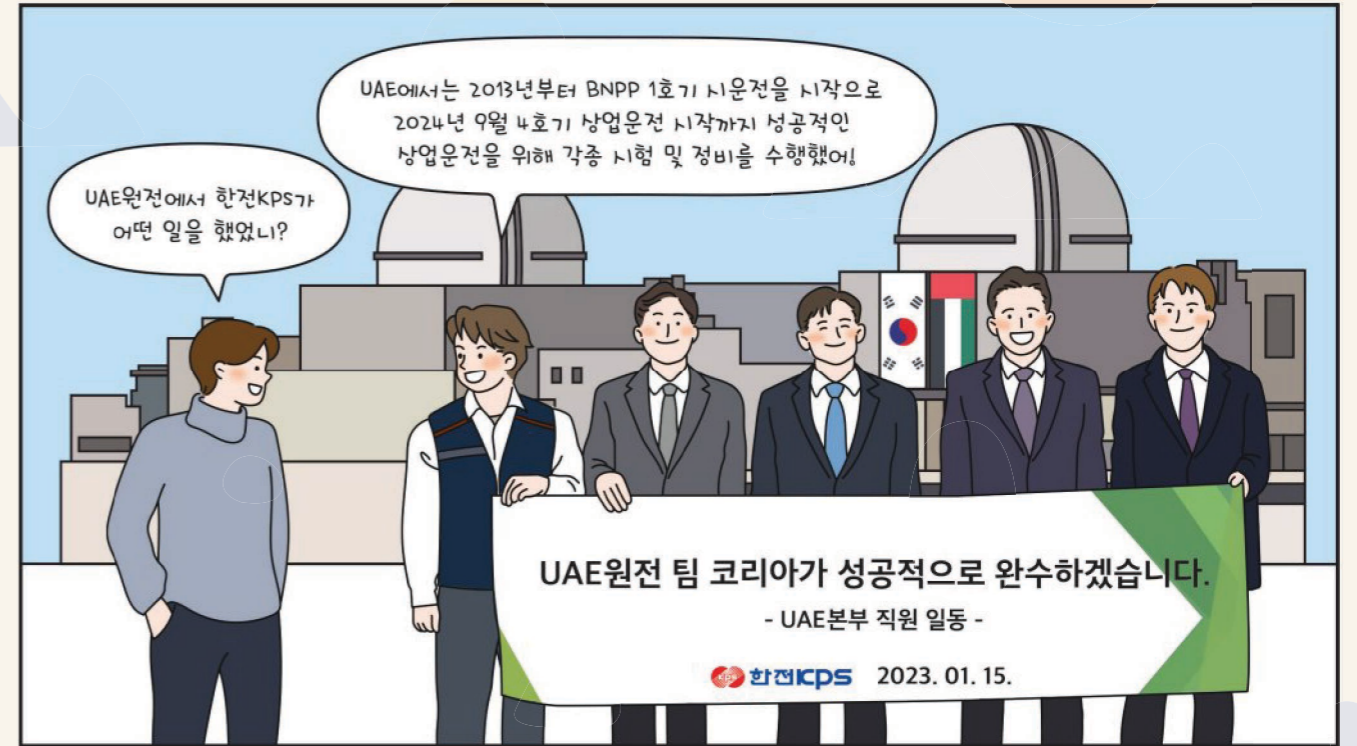
나이를 먹을 수록 체력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습니다. 올해는 개인의 체력도 체력이지만 업무적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에 힘쓰려고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결심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이지만, 그 작심삼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결국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새해에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마음먹었을 때 바로 시작합니다.

From. 제주사업소 전기1부
고경훈 선임과장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2024년 우리나라는 팀 코리아로 15년 만에 해외 원전을 수주하는 쾌거를 맞이했다.
여기에 발전소의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한전KPS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했다.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 등 25여 개국에 진출하며 발전·정비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해 온 한전KPS.
이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나갈 해외 발전 사업 분야에 대해 함께 만나보자.

글. 편집실 그림. 유민





열사의 나라 UAE 및 타지에서 생활은 힘들지만, 한국 최초의 수출 원전이 원활히 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우리의 땀방울이 그곳에 녹여있기에 한전KPS인으로서 매우 자부심이 있지!



그럼 체코에서도 UAE원전사업과 비슷하게 신규원전을 정상적으로 시운전해서 문제 없이 가동될 수 있게 해주는거구나?

맞아! 그리고 체코 신규원전은 유럽최초로 진출하게 되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로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거야!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대상으로 한 가동원전사업이 있어 특히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 사업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어.

또한 브라질, 스웨덴 등 한전KPS는 전세계 원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KPS 만의 비전을 구체화 하고 현실화 해 나가는거지!



정말 많은 해외원전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맞아! 앞으로 한전KPS의 미래는 상당히 밝게 보여!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더 넓은 세계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국가를 선택해 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해! UAE, 루마니아, 체코 등 전세계 어디든 말이야!



그럼 또 다른 해외원전사업이 있어?

물론이야! 우리는 체코 뿐만 아니라 폴란드, 영국, 남아공 등 신규원전을 추진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업체발굴 및 MOU 체결 등 많은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의 품질을 높이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이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전정비시장을 선도하는 한전KPS가 있어!

안전은 아는 만큼 보인다

보령사업처

변화는 과감한 도전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만들어진다. 보령사업처의 2024년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더 촘촘한 안전망을 위한 다양한 도전은 리더와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었다. 이는 2025년 'CEO Safety Awards' 최우수상이라는 영광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도전을 디딤돌 삼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때, 2025년 보령사업처의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다.

글. 박향아 사진. 고인순





안전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물론 규율과 규칙도 중요하지만, 강제성이 강조되는 안전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일상 속에 스며든 안전 문화

보령사업처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커다란 게시판에는 '안전에 대한 구성원 개인의 다짐'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 구성원이 자신의 글씨체로 써 내려간 이 '안전 다짐'은 개인의 머그잔에도 그대로 새겨져 각자의 책상에 자리하고 있다. 계단과 복도 곳곳에는 '안전테마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되어 있고, 현장 부서 출입 통로에서는 안전홍보 포스터를 만나볼 수 있다. 안전 교육 동영상과 안전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키오스크와 로고젝트는 1층 출입구에 설치되어, 직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보령사업처 직원들은 매 순간 '안전'을 마주하며 하루를 보내는 셈이다.

"안전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물론 규율과 규칙도 중요하지만, 강제성이 강조되는 안전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구성원 스스로가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안전이 습관이 될 때, 현장의 안전도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안전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빈틈없는 현장 안전 책임지는 보령 안전 PLUS Board

보령사업처 이동훈 안전팀장은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보령사업처가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는 국내 최초의 국산화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로, 총 4,499MW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규모 발전단지다. 이는 국내 전체 전력 설비의 3.50%를 차지하는 규모. 보령사업처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설의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규모 단지 인 만큼 안전팀의 노력만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저를 포함한 안전팀원이 모든 현장에 늘 상주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안전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각자의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져줄 동료, 현장과 안전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줄 조력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 보령사업처에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는데요. 바로 보령 안전 PLUS Board가 그 주인공입니다."

보령 안전 PLUS Board는 2024년 4월 발대식을 하고, 현장 곳곳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보령사업처의 안전지킴이다. 산업안전 국가 공인 자격 보유자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최일선에서 안전리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안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우리는 안전을 배운다

보령 안전 PLUS Board의 활동이 의미 있는 건, 자격증 획득 과정이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각자가 담당하는 분야에 안전이라는 역량이 더해지는 것이 개인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참여 열기가 뜨거워진 덕분이다. '안전을 아는 것이 나는 물론 동료의 안전을 지키는 동력'이라는 문화도 배움의 열기를 더하는 역할을 했다.

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안전을 배워야 한다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보령 안전 PLUS Board와 연계한 'Safety Mentoring'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발 앞서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이 배움을 원하는 동료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자처한 것. 매월 1회 정기적인 스터디 모임을 통해 자격시험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안전에 관한 이슈와 정보는 물론 안전에 관한 고민을 나눈다.

뿐만 아니라 안전 쉼터 공간인 '안전 다가온살'을 조성해, 누구나 안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전도서와 자료를 비치하고 안전 스티커와 회의 등 안전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덕분에 2024년에만 8명의 직원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 보령 안전 PLUS Board에 합류했다. 그 외에도 9명이 산업위험성평가사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 8명이 TBM 리더 교육을, 5명이 본사 주관 위험성평가 교육을 수료했으며, 전문강사 초빙 위험성평가 교육을 총 21회 시행하는 등 안전을 배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안전은 아는 만큼 보이고, 개개인의 안전 수준이 높아질 때 보령사업처의 안전도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한 단계 도약할 2025년을 기대

안전한 보령사업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보령사업처에서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 전 직원에게 안전메시지를 발송하고, 안전밴드를 통해 실시간 작업 내용을 공유하는 이유다.



"매일 작업 전 안전밴드에 TBM 활동을 등록하고, 현장에서도 TBM 일지를 작성하는데요. 우리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과 관련된 위험 요소 등을 전 직원이 알고 작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안전 PLUS Board 멤버들이 모바일 투표로 관련 활동을 평가하고, TBM 우수조를 선정해 포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차곡차곡 쌓인 안전밴드 활동은 분기별로 '안전활동 밴드 BOOK'으로 제작해, 안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따라 합류하는 단기근로자의 안전 역시 중요할터. 보령사업처에서는 상대적인 안전 약자인 단기근로자를 위한 안전 교육과 함께, 감성안전을 모토로 다가가고 있다. 단기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감성안전용품, 사업처장 안전메시지가 담긴 '情' 꾸러미를 전달하고, 현장 이동보건실을 운영해 건강 취약계층을 집중 케어하고 있으며, 단기근로자와 하도급 업체 직원 중 우수 안전인을 선정해 수시로 포상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안전한 보령사업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도전과 시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도전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깊이를 더해가려고 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2025년, 보령사업처의 안전망은 더 단단하고 촘촘해질 겁니다."

Mini Interview



이동훈
안전팀장

Q. 시무식에서 진행된 CEO Safety Awards에서 수상하셨는데요.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4년은 안전한 보령사업처를 만들기 위해 전 구성원이 힘을 모았던 한 해였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김열 처장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애써준 우리 안전팀, 그리고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배움을 이어가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신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CEO Safety Awards'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실천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의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안전 프로그램, 현장에서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이 일상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근
노조위원장

Q. 업무 성과와 안전 사이에 이상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장은 규모가 크기도 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적은 인원이 '안전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지요. 그럼에도 사고 없이 실력을 인정받으며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처장님과 안전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책임을 다해주고 있는 모든 구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25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각자의 실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출근해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말정산 노하우

매년 1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2024년 연말정산의 핵심은 무엇이고,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본다.

글. 신방수 세무사



2025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것들

올해 실시되는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소개한다.

✔ **Check 1** 자녀와 관련된 공제제도가 개정됐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둘째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에 대한 한도가 삭제되었으며, 산후조리원비 공제(200만 원, 15%) 적용 시 총급여 요건(7,000만 원 이하)은 폐지되었다.

✔ **Check 2** 결혼세액공제가 최근 신설됐다.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50만 원을 결혼세액공제로 적용한다. 이 공제는 2025년 2월 연말정산 때부터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참고로 이 공제는 개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 **Check 3**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지출액의 17%(지방소득세 포함 시 18.7%), 초과 시는 15%(16.5%)만큼 공제가 된다.

✔ **Check 4** 주택청약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차입을 통해 취득할 때 공제요건 중 주택 기준시가의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공제한도는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 **Check 5**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통상 은퇴 시에 금융회사를 통해 받은 사적연금소득은 위 금액 이하는 3~5%의 저렴한 원천징수 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6~45%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매년 수령액을 1,500만 원(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제외)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3,000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 달리 적용되는 것들

2025년의 소득(2026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 **Check 1**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포함) 중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35만 원, 셋째 이상은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2025년부터는 25만 원, 55만 원, 40만 원으로 공제액이 각각 인상된다.

✔ **Check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것을, 근로자의 배우자가 납입한 때도 이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Check 3**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 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특수관계자의 출산은 제외).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 **Check 4**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 등이 확대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이를 10년으로 연장한다(단, 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한편 생애 첫 주택의 구입하면 200만~300만 원, 출산 전 1년~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Check 5**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한다. 현재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15%)하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2024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3,000만 원, 40% 공제)는 2025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2025년부터 상장주식 등에 적용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폐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연말정산 오류 정정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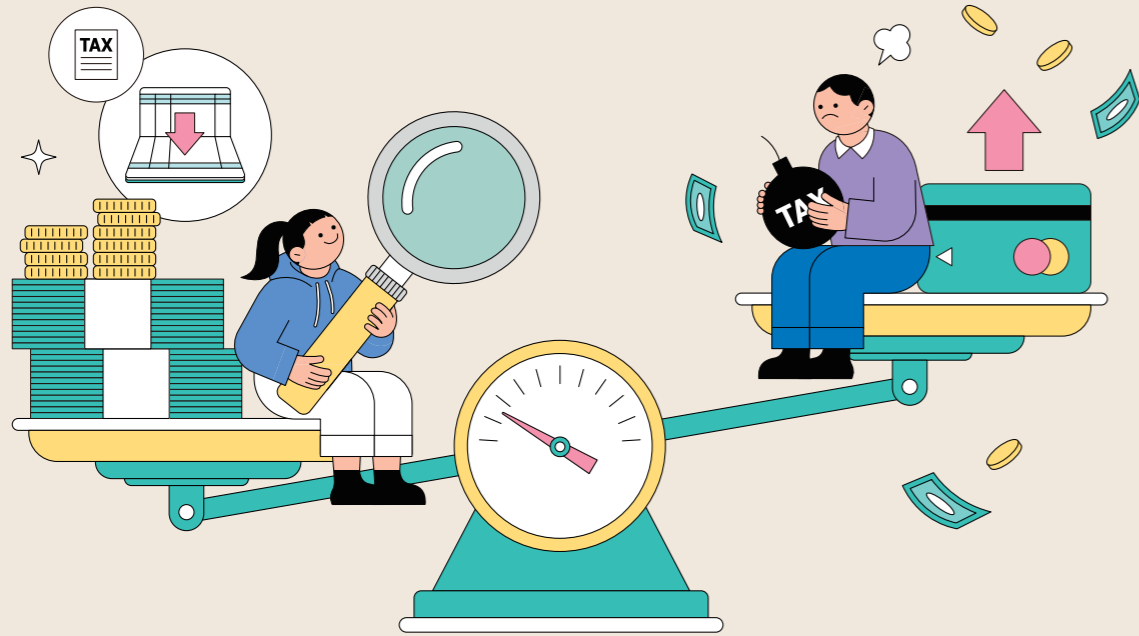
연말정산은 직장인이자면 매년 맞이하는 연례행사이지만, 매년 신청 오류에 따른 세금추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주요 원인은 주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즉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나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양도소득 등을 포함)을 의미한바, 이 금액(수입-비용)이 100만 원을 넘으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은퇴한 아버지가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맞벌이의 경우 자녀는 한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중복하여 받은 일도 있다. 이러한 유형 외에도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적게 낸 경우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를 해야 한다.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10%)의 90%를 감면한다(2년 이내 수정신고 시 10~90% 감면).

▲ 많이 낸 경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아닌 개별적으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과 내년 연말정산비교

1. 소득공제

구분		2024년	2025년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자녀 20세 이하): 1인당 150만 원	좌동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공제: 200만 원 · 맞벌이 부녀자 공제: 50만 원	좌동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입액 전액	좌동
특별소득 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좌동
	주택자금공제	· 청약 저축이나 임차 차입금 상환,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 한도 600만 원 또는 2천만 원	좌동(단, 근로자 배우자의 청약 저축분도 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함. · 한도: 7,000만 원 이하자 600만 원, 초과자 450만 원	좌동(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추가)

2. 세액공제

구분		2024년	2025년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30만 원/1인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40만 원/1인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아래 한도 내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 생명·손해 보험료: 100만 원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좌동
	교육비 세액공제	아래 한도 내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 - 본인: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 유치원·초중고: 300만 원 - 대학생: 900만 원	좌동
	의료비 세액공제	아래 한도 내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단, 총급여액의 3% 초과하여 지출) - 700만 원(본인, 영유아 등의 한도 없음)	좌동
	기부금 세액공제	· 한도 내 보험료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 고향 사랑 기부금: 500만 원(15%)	· 좌동 · 2,00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 600만 원(IRP 계좌 납입 시 300만 원 추가)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2~15%를 세액공제	좌동
월세세액공제		1,000만 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	좌동
결혼세액공제			신설(50만 원)



시작이 어려운 순간 사소하지만 위대한 시작법

누구나 시작을 계속 미루거나 해보기도 전에 포기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전문가들은 시작도 습관이라도 이야기한다.
시작이 쉬워지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 살펴본다.

글: 박민선 <아주 작은 시작의 힘> 저자



우리가 시작을 미루게 되는 이유

올해 초 세운 새해 계획이 벌써 작심삼일로 돌아갔다면 주목해 보자.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세운다. 주로 어학, 운동 등이 목표에 오른다. 그런데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보통은 세 가지 이유 중 하나다.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환경적 요인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록과 회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탈진할 때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중독 중에서 유일하게 일 중독은 환영할 만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때문에 회

사 일이 많은데 집안일과 새해 계획 실천까지 겹치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위협 앞에서 투쟁 혹은 회피(Fight-or-Flight) 반응을 일으킨다. 하지만 위협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할 것 같다고 느낄 때 멈춤(Freeze)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너무 놀라서 두뇌가 멈춰버린 것이다. 마치 고속도로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은 사슴처럼 우리 두뇌는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수준까지 느낀다. 시작을 지속적으로 미루게 된다면, 먼저 할 일은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위한 자비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한다는 논문도 있다. 스스로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대해 보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출근하고 할 일을 마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자신의 밥벌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 혹은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하다. 회사에서 사소한 실수를 했다고 스스로를 심하게 질책한 경험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평생 데리고 다닐 내 친구를 친절히 대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짜 나의 목표인지 점검하기

우리가 힘들 때는 나만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거나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영화 <스코어: 영화음악의 모든 것>에는 대가들이 얼마나 작업을 무서워하며 마음을 미루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온다. 작곡가 엘리엇 골든탈은 “정말 무서운 건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음악 작업을 반박에 못 한 내 이름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걸 발견했을 때”라고 고백했다. <인터스텔라>, <라이온 킹>, <둔>의 음악을 만든 한스 짐머도 “감독이 떠나면 혼자 생각에 잠긴다. 어떻게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그냥 감독한테 전화해서 다른 사람 쓰라고 할까?”라며 비슷한 불안을 털어놓는다.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압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중력을 견디고 있다.

여태껏 세웠다가 실패한 목표를 한 번 되짚어 보는 자세도 중요하다. 생각해 보면 그 목표가 사실은 나의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면 내적 동기가 부족해서 실천을 지속하기 힘들 수 있다.

진짜 나의 목표와 가까워지려면 진짜 나의 욕망에 가까워져야 한다. 나의 욕망을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다. 최근에 누군가를 보고 부럽다고 느꼈다면, 혹은 크게 화나거나 기뻐했던 경험이 있다면 자신이 느낀 감정 안의 욕망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실제 행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장’, ‘돈’, ‘건강’, ‘관계’, ‘워라밸’ 등 솔직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평소 하던 고민을 적어 보는 것이다. 해결해야 하지만 바쁜 생활에 밀려서 모른척했던 것을 큰 작든 적어 보자.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해결책도 함께 적어 보면 좋다. 예를 들어 중간관리자로 승진하고 싶다는 고민을 적는다면,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르기는 해결책을 함께 적는 것이다. 팀장이 되면 보고받고 회의를 주재하는 비율이 팀원일 때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실제 행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장’, ‘돈’, ‘건강’, ‘관계’, ‘워라밸’ 등 솔직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목표가 영어 공부인데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어 공부의 목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마음 맞는 친구와 주기적으로 만나 영어로만 대화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작게 쪼개 빨리 시작하고 꾸준히 보상하기

감자칩이 맛있는 이유는 기름에 튀긴 것도 있겠지만 얇아서 바삭한 것도 있다. 목표를 감자칩 수준으로 얇게 쪼개보자. 피곤해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간 관리자급이라면 직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부터 해볼 수 있다. 인기 프로그램을 제작한 나영석 PD와 김태호 PD 모두와 같이 일해본 작가가 두 PD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모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듣고 얘기한다고 답했다. 그만큼 잘 듣는 것이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스스로를 위한 보상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는 시간이 담보되어야 한다. 100일간 썩과 마늘을 먹으며 인간이 되기를 꿈꿨던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가 담긴 단군신화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같은 장소와 시간에 반복되는 일을 해보자. 주 6일 1시간 10분을 낼 수 있다면 7시간이 된다. 회사에서 하루 일하는 시간이 8시간임을 감안하면 일주일마다 하루에 가까운 시간이 생기는 것이니 무시할 수 없다.

특정 활동을 할 때 일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다. 운동할 때 주로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거나 책을 읽을 때 향초를 켜는 것처럼 무엇을 하는 행위에 의식(Ritual)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동기부여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록과 회고

우리가 목표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함께 뛰어주는 코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 기록하는 것이 코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목표에 대한 계획과 고민, 실천한 것을 기록하는 ‘주제 노트’를 적어보자. 기록을 하면 주 5일 실천하기로 한 계획을 주 2일 실천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기록을 통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힘들게 해냈던 것을 능숙하게 해내게 된 능력 향상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로 이어진다. 기록하고, 기록하는 것을 반복하면 성장을 통해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겨울 속 피어난 희망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여정

겨울은 '시작의 계절'이다. 만물이 멈춰있는 듯하지만 새롭게 태어날 생명을 준비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1년 동안 뚜벅뚜벅 나아가기 위한 활력을 충전해 보자. 깨끗하고 눈부신 겨울 풍경을 따라 한해를 더욱 의미 깊게 시작할 수 있다.

글. 김주희 사진. 한국관광공사



첫 다짐을 품은 새해에는 마음이 웅장해지는 전망대 여행을 추천한다. 방해물 하나 없이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고공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강원 동해는 겨울 바다를 마주한 채 희망과 설렘을 더하기에 제격이다. 2021년 개장한 도깨비골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는 청량한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짜릿하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목호등대 부근에 위치한 전망대 도깨비골 스카이밸리는 요모조모 색다른 매력의 구간들로 구성됐다.

해발 59m 높이의 스카이워크 '하늘산책로'를 비롯해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자전거를 타며 하늘 위를 달리는 '스카이 사이클' 체험, 원통 슬라이드에 몸을 맡긴 채 27m 구간을 빙글빙글 미끄러져 내려가는 '자이언트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다. 투명한 유리 바닥으로 조성된 하늘산책로 전망대에서는 아찔한 높이가 온몸으로 체감된다. 한없이 넓은 바다와 바다 위로 길게 뻗은 목호방파제, 목호항, 목호등대 등이 사방으로 펼쳐진다. '도깨비'라는 이름은 도깨비의 방언인데, 예부터 도깨비골이라 불린 마을 대대로 내려온 구전을 콘텐츠로 녹여낸 것이 특징. 도깨비와 도깨비방망이 등 곳곳에 자리한 익살스러운 조형물도 눈길을 끈다.

스카이밸리에서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해랑전망대를 만난다. 길이 85m의 해상 산책로로 바닥 면은 유리와 그물망 형태의 철재 소재로 완성했다. 세차게 부서지는 파도를 발 아래 두고 감상하노라면 짜릿한 스릴이 극대화된다. 사위로 탁 트인 풍경과 바다 내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Q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목호진동 2-109(도깨비골 스카이밸리)

☎ 070-7799-6955



눈부신 절정의 겨울왕국 산행
무주 덕유산

겨울 산행 대표 명소로 손꼽히는 덕유산은 새해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여행지로 최적이다. '넉넉하게 베풀다'는 뜻을 지닌 이름 덕분일까. 산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며 과거를 비운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가득 채울 수 있다.

덕유산은 전북 무주군·장수군과 경남 거창군·함양군에 걸쳐 있다. 무주에서 출발하면 곤돌라로 해발 1,500여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어 한결 편하게 산행에 도전할 수 있다. 겨울이면 꽃처럼 화려한 상고대가 지천으로 펼쳐진다. 웅장한 능선에 뿌려놓은 새하얀 설경은 겨울왕국에 '입성'하는 듯한 비현실적인 기분을 선사한다. 오랫동안 뿌리내린 나무의 가지들이 서로 엉켜 만들어낸 거대한 눈꽃 터널은 천연 포토 스팟이다. 군락을 이룬 구상나무에 흐드러진 눈꽃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하얀 눈길을 걸을 때마다 뽐드득뽐드득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뺨에 닿은 찬 바람에 기분까지 상쾌해진다. 그야말로 겨울을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다.

곤돌라에서 내려 처음 닿는 봉우리가 설천봉인데, 여기에서 20분쯤 걸어 올라가면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에 닿는다. 해발 1,614m인 향적봉에서는 더욱 압도적인 설경을 맞는다. 해발 7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주목과 눈이 어우러진 겨울 산의 매력이 극대화된다. 짙은 하늘과 햇빛에 반짝이는 눈꽃, 장엄하게 뻗은 능선이 사방을 에워싼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올라온 길을 되돌아보면, 성취감과 함께 복잡한 머릿속이 한결 명징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Q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무주덕유산곤돌라)

☎ 063-322-9000



January_vol.453



보령 패러글라이딩
힘차게 하늘을 날다, 새해맞이 챌린지

그 어느 해보다 파이팅 넘치는 출발을 하고 싶다면 익스트림 레포츠에 도전해 보자. 드넓은 하늘을 유영하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은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다. 보령에서는 옥마산 정상부에서 이륙해 서쪽 기슭으로 착륙하는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 이륙에 최적화된 경사면을 갖춘 보령 옥마산은 초보자에게 좋은 활공장으로 손꼽힌다. 나무나 바위 등의 장애물이 없는 것도 장점. 더욱 드라마틱하고 와이드한 경치를 바라보며 활공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푸른 서해와 조붓하게 자리한 섬을 내려다보며 느끼는 짜릿함은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옥마산은 해가 바다 너머로 기울 때 낭만이 배가 된다. 붉게 물든 바다를 배경 삼아 유유히 상공을 가로지

르며 '노을망'을 즐길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2인승 비행으로 운영되며 일반비행, 곡예비행, 특별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있으니 취향과 수준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이륙장의 뒤편에 자리한 전망대도 놓치지 말 것. 나선형으로 설계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보령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쪽으로는 보령시와 대천해수욕장을, 동쪽으로는 성주산과 만수산 등 보령시 명산을 조망할 수 있다. 날씨가 좋으면 안면도까지 시원하게 뻗은 풍광 감상도 가능하다. 전망대 이름은 성주산전망대이니 방문 시 참고할 것.

Q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114-22(성주산전망대)

☎ 0507-1362-7215

본사 뉴스

2025년 을사년 시무식 개최



우리 회사의 힘찬 2025년 시작을 알리는 을사년 시무식이 1월 2일 본사 빛가람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무식은 2025년의 경영 목표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모범직원상 수여와 CEO Safety Awards 수여, 우수사례발표, 신년사 등으로 진행됐다. 시무식에 참석한 김홍연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100년 기업을 도약하기 위해 도전과 혁신으로 신성장 사업을 추진해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속 성장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2024년 제2차 신입사원 입사식 개최



2024년 제2차 신입사원 입사식이 지난 12월 27일 본사에서 진행됐다. 자리에 참석한 140여 명의 신입사원들은 입사식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의 교육을 거쳐 한전KPS인으로서 발돋움할 예정이다. 김홍연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주인이라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창의력으로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승화시키는 기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입사원 대표는 “패기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우리 회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회사는 청구 처리 적정성과 청구 처리 준수율 등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종합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총점 99.2점으로 2023년 평가(98.06점)보다 향상된 점수를 받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분류되는 성과를 얻었다.

겨울철 전력피크 비상대응 점검회의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24일 나주 본사 위기관리상황실에서 김홍연 사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주요 경영진과 함께 ‘2024년 겨울철 전력피크 비상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겨울철 전력피크에 대응한 비상 상황 긴급복구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화력·원자력·양수 등 주요설비 중 동결·동파 취약시설 집중점검과 화재 위험 예방활동 등 선제적 사전점검 체계를 확인했다.

원전수출 시장 확대 가시화



우리 회사가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사업에 참여하면서 해외 원자력 발전소 정비시장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한 국제 컨소시엄은 지난 12월 19일 루마니아 원자력공사와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회사는 이 중 원자로 압력관 교체 및 설비개선 사업을 담당할 예정으로, 한수원과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 체결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루마니아 설비개선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성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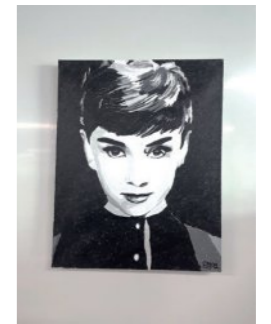
지난 12월 30일 우리 회사 임직원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성금을 기탁했다. 김홍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피해 지원성금’ 1억 5,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유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심리치료 및 1대 1 지원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소 긴급복구용역 계약 체결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31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발전소 긴급 복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우리 회사는 창사 40년 만에 제작사 수준의 원전 핵심설비 특수정비 기술역량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계약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해자 가족으로부터 감사 손편지 도착



1월 10일 우리 회사에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다. 지난해 12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인 ‘산타원정대’를 통해 인연을 맺은 나주시의 한 가정에서 보내온 선물로,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적은 손편지가 담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편지에는 세자녀를 기르는 아버지의 감사 인사가 담겨 있었는데 “항상 아이들에게 부족한 마음이 커 미안했는데, 한전KPS 덕분에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전KPS에 정말 감사하다”고 전달했다.

사업소 뉴스

강릉사업소 1사업소 1대표 사회공헌 활동



강릉사업소는 지난 12월 20일에 강릉보육원을 방문해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강릉사업소는 1,600만 원 상당의 복지생활시설 보수공사와 에너지저장용 노후 냉장고 교체 및 지역농산물 구매 지원금을 강릉보육원에 후원했다. 이번 사회공헌에서 강릉사업소는 직접 보육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공사결과를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릉사업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태안사업처 3년 연속 지역사회 후원



태안사업처는 지난 12월 23일 태안지역아동센터와 충남농아인협회 태안군지회에 친환경수건 1,200장 및 온누리상품권 695만 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태안사업처가 기부한 온누리상품권은 고객사로부터 직원들이 받은 무재해 상생 포상금을 활용한 것으로, 노사가 한마음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금되어 3년째 기부로 이어지고 있다.

월성3사업소 품질경영경진대회 은상 수상



월성3사업소는 지난 12월 17일 열린 2024년도 한전KPS 품질경영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출전한 7개팀 중 월성3사업소 문무대왕 분임조는 '원자력 압축공기 생산 공정개선으로 정비시간 단축'이란 주제로 현장개선 품질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품질경영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월성3사업소 문무대왕 분임조에는 올해 열리는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고리1사업소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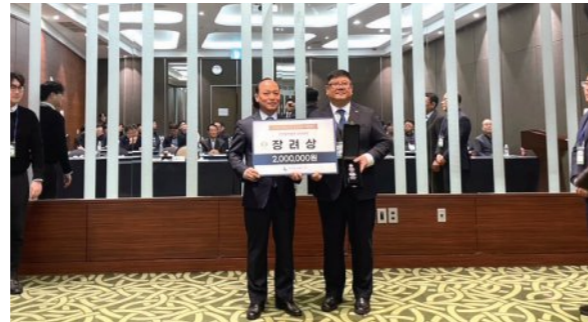
고리1사업소는 지난 12월 26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로부터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장을 수상했다. 고리1사업소는 지난 2018년부터 대한적십자사의 '쓰쓰이가 바른기업'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지역 긴급 구호 및 위기 가정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대한적십자사와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물품기탁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기여했다.

한울3사업소 산업안전 우수 작업조 선정



한울3사업소 전기부 전동기조는 지난 11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제3발전소장으로부터 한울 5호기 제14차 계획예방정비 산업안전 우수 작업조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한울 5호기 제14차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전동발전기 플라잉 분해-점검 작업 작업방법 개선해 산업안전사고 및 사고 위험도 감소에 기여한 결과다. 특히 작업 기간 동안 엄격한 안전 수칙 준수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 것을 인정받아 우수 작업조에 선정됐다.

인천사업소 안전관리 수준평가 3위 달성



인천사업소는 지난 12월 19일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협력회사 18개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3위로 선정돼 포상금과 상패를 수여 받았다. 이어 고객사에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Best Partner 부분도 선정돼 포상금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이 외에도 인천발전본부로부터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인천사업소는 2025년 역시 고객사와 동반 성장하는 결실을 맺겠다고 전했다.

평택사업소 자원봉사자의 날 단체포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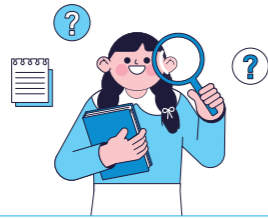
평택사업소는 지난 12월 3일 평택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맞이해 평택시 시장으로부터 단체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어르신 재능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복지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부산사업소 새해맞이 안전다짐대회 시행



부산사업소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해 1월 7일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안전다짐대회를 시행했다. 이날 안전다짐대회에는 안전 최우선 방침을 강조하고 실천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부산사업소는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Special Essay를 읽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지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회사의 따뜻한 나눔 활동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_여*혁님

Special Thanks to를 통해 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짧은 감사의 글이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_이*경님

소분라이프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소비와 일상을 쪼개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_박*화님

수고했어, 올해도! 기사를 읽으며 한전KPS인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직원들에게 공감대 형성도 돼서 늘 잘 읽고 있습니다.

_김*식님

여행 탐방 기사를 읽으면 늘 힐링 받는 기분입니다. 이번 소중한 인연과 감사한 마음을 나누며 떠날 수 있는 여행지 추천이 유익했습니다.

_홍*호님



지난 호 정답

- Q1. 감사
- Q2. 월성1사업소

지난 호 당첨자

- 여*혁, 이*경, 박*화,
- 김*식, 홍*호

* 당첨되신 분에게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UIZ TIME

클스 퀴즈

Quiz 1

60년 만에 돌아온 을사년을 맞아 한전 KPS 뱀띠 직원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렇다면 을사년은 무슨해 일까요?
(힌트. ㅍㄹㅂ, p12-13)

Quiz 2

한전KPS가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이 나라의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 일까요?
(힌트. ㅌㅋ, p22-25)

퀴즈 정답 제출 및 모바일 염서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이동해 이번 호의 퀴즈 정답과 함께 <KPS STORY>를 읽은 소감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벤트 마감일 2월 20일까지
경품 발송일 4월 중순

한 전 K P S 사 보

<KPS STORY>

만족도 조사



<KPS STORY>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전KPS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보 제작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 기간: 2025년 1월 24일(금) ~ 2월 21일(금)
- 참여 방법: QR코드를 찍고 설문조사에 참여 후 제출
- 당첨자 발표: 2+3월호
- ※당첨자 개별 연락

설문조사 참여하기